

링 오른 민주 이재명-이낙연, 도덕성 검증 공방 ‘점입가경’

“유평터머스 의혹 연관성 검증” vs “SNS 비방 관련성 가려야”

양강 구도에 정세균·추미애 등 호남·충청 표심 확보 분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도덕성 검증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두 후보가 직접 전면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또 이재명·이낙연 후보간의 양강 구도로 흐르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나머지 후보 4인의 설 곳이 더 좁아지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 진모씨의 ‘SNS 비방’ 의혹이 이 전 대표 측의 공세 포인트로 떠오르자 직접 되치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KBS 라디오에서 “지지자들의 사실 왜곡이나 마타도어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며 “겨우 찾아낸 게 그 정도”라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일부러 물을 흐려서 본인들을 숨기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많다”며 “예를 들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주변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혜택을 보던 사람인지 검증하는 게 진짜 검증”이라고 반격했다. 역으로 유평터머스 의혹과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도 검증해 보자고 일격을 가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유평터머스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이 끝났다고 선을 그으며 SNS 비방 의혹과 이 지사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검찰이 한 사람의 목숨을 버릴 만큼 과잉 수사를 했었지 않느냐. 설마 저를 보냈겠느냐”며 “다른 문제도 엄정하게 해야 옳

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서는 “(SNS비방과 관련 이 지사와 연관성도) 가려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진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캠프 활동도) 잘 모르겠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은 의원은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는다”며 “도지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연봉 8800만원의 유관기관 임원으로 임명했다는 건데, 이런 도정 농단”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인증샷을 찍은 적 없다고 측근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낚은 마타도어 수법”이라며 “사단법인의 민간인에 대해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강구도가 굳어지면서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이번주 호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4일 간 광주·전남에 상주하며 조직을 다지고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대전·충남지역 표심 확보에도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충북도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는 20일 충남도청을 찾아 양승조 충남지사가 추진해온 충남 국제공항, 충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공약하고 “양 지사와 함께 충남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경선을 통과하지 못한 양 지사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원 세물이에 박자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추미애 후보는 SNS와 언론 인터뷰에 집중하되 오는 22일엔 충청권으로 향한다. 추 후보는 지난주 광주에 이어 18~19일 고향인 대구를 찾은 바 있다. 박용진 후보는 양강 후보를 싸잡아 타격했다. 박 후보는 라디오에 출연해 “험한 말들, 네거티브 정책 캠페인이 민주당 경선 전체를 흐리고 있다”며

“네거티브는 우리가 다 같이 먹는 우물에 침을 뱉는 일이고 독약을 푸는 행위로 자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후보도 광주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9일 광주를 찾은 김 후보는 이날도 광주에 머무르며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당원들을 만났다. /오광록 기자 kroh@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대법 선고…쟁점은 ‘킹크랩’

2심 판결 후 8개월만에 상고심
‘친문적자’ 대표…민주 경선 영향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진행된다. 김 지사는 대표적인 ‘친문적자’로 꼽힌다. 전에서 무죄로 풀려날 경우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위법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윤 대세론’ 한풀 꺾이자 야권 주자들 추격전

최재형 두자릿수 지지율 목표
홍준표·유승민·원희룡도 쟁결음

야권 잠룡 중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공 지지율이 한풀 꺾이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추격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0.3%를 기록했다.

최근의 지지율 흐름에 가장 고무적인 쪽은 ‘후발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다. 최 전 원장은 이번 KSOI 조사에서 앞선 조사 대비 3.1%포인트가 오른 5.6%로 ‘마의 5%’를 돌파, 4위를 기록했다. 최 전 원장 측은 애초 이달 말까지 5%를 넘긴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를 조기에 달성한 만큼 2차 목표인 두 자릿수 지지율을 이달 내에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최 전 원장의 상승세 속에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의 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이준석 대표

오늘 첫 TV 토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첫 TV 토론에 나선다.

20일 양당에 따르면 두 대표는 21일 오후 2시부터 75분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대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방역, 검언유착 논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 후보가 아닌 여야 대표가 TV 토론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선 승리가 최대 과제인 양당 대표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두 대표는 지난 12일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함께 TV 토론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송 대표는 “TV 토론에 나가서 새로운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감대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서울대 비정상적 고용구조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최근 사망한 서울대학교 소속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서울대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의 현안발언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께서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명확히 밝혀진 것 없이 의혹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운영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언급하며 “서울대가 그동안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았

는지 확연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이 같은 차별적 인식은 서울대학교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학교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는 작년 국정감사에도, 재작년 국정감사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투자가치 100% 확신! 강력추천!



감정가 5,920,417,660원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부근)

- 대 지 : 2,700 m²
- 건 물 : 3,704 m²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매도가격 협의

상담 010-3733-3933